2026. 11월 둘째 주(1)



포이에마예수교회
가정예배 순서지

찬양 |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기도 |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기 | 고린도후서 6:16~7:1

❖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을 전하고, 그러니 깨끗하게 살자고 권하는 말씀이에요.

[개역개정]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쉬운성경]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1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 줄 것이다." 18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1. 16절에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2. 16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사이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두 가지 표현을 찾아봐요.

삶의 이야기

1. 소중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면 무엇을 먼저 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요?
2.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축복 | (　　)은/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야.
그 안을 깨끗하게 지키며 살아가길 축복해!

마침기도 |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부르신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 약속에 걸맞게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 11월 둘째 주(2)



포이에마예수교회
가정예배 순서지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 나의 안에 거하라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닮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기 | 고린도후서 7:5~7

❖ 지치고 두려웠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셔서 위로하신 일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개역개정]

5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쉬운성경]

5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도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6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7 디도가 온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질문나눔

1. 5절에서 바울의 상태는 어땠나요?
   밖과 안에서 각각 무엇이 있었다고 하나요?
2. 6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나요?

삶의 이야기

1. 누가 와주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였던 적이 있나요?
2.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 위로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축복 |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셔.
(　　)이/가 힘들 때 곁에 올 사람을 보내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네가 그 사람이 되길 축복해!

마침기도 | 하나님, 지친 바울에게 디도를 보내셨던 하나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들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